



## Let's 뒤샘



### 뒤샘의 신규 종목들

지난 6월 14일, 뒤샘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 막을 열었다. 학생들의 에너지가 가득한 경기와 열정적인 순간들은 계속되었다. 특히 이번 뒤샘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채로운 종목들이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종목으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발야구,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다. 학생들의 기대 속에 백호팀과 흑염룡팀의 힘찬 응원전으로 뒤샘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게임은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진행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이다. 이 게임은 세 파트로 나누어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며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흑염룡팀이 승리를 거두며 첫 게임에서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7, 8학년들을 위한 발야구가 펼쳐졌다. 남자 게임에서는 흑염룡팀이 8: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여자 게임에서는 백호팀의 활약으로 9:8까지 역전하는 듯했으나, 결국 흑염룡팀이 1점 차이로 승리를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후, 두 팀은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펼쳐진 이번 뒤샘은 학생들의 열정과 협동심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다채로운 종목들로 인해 더욱 흥미진진한 하루가 되었다.

양혜빈 기자 이루리 기자

### 뒤샘의 꽃 계주

2024년 뒤샘의 꽃인 계주는 팽팽한 분위기 속 진행되었다.

그중 계주의 끝을 장식한 마지막 주자들, 백팀의 하주호, 흑팀의 이성진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흑팀의 마지막 주자인 이성진 학생은 1등 하겠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바통을 놓치는 실수가 생겨 풀등을 하게 된 이성진 학생은 같은 팀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그 상태로 달려서 집에 가고 싶었다는 당시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뒤샘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12학년도 뒤샘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마지막 뒤샘에 대한 아쉬움을 들어냈다.

다음으로는 백팀의 하주호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다. 하주호 학생은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기 중에 주안이가 점수 배점을 말해주더군요. 백호팀에서 1, 2등이 되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백호팀이 1,200점 차로 지는 상황에서 1등과 2등 합산이 1,300점이라니, 드라마 한 편 써보라고 제작비 받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어요.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렸던 거죠."라며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말해주었다. 결승선에 들어올 때 들었던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뛰면서 뒤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렸죠. 그렇게 뛰다 보니 제 앞엔

결승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뒤에 누가 들어오는지는 못 봤는데 백호팀의 환호성이 승리를 직감하게 했죠.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팀원들과 기뻐 뛰던 순간이 기억나네요."라며 승리의 순간을 전했다.

끝으로 마지막 뒤샘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이번 뒤샘은 우리 12기에게 정말 특별했어요. 마지막 뒤샘이었기에 더 애뜻하고 소중했죠. 함께 땀 흘리며 웃던 순간들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뒤샘을 기획하고 진행한 풀뿌리 친구들, 여자 축구를 이기겠다며 득달같이 연습하던 여자 선수들, 후배 상대로 꼭 이기라며 죽어라 응원하던 12기의 열정이 특히나 빛났던 거 같아요. 그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응원했던 모습이 강하게 기억에 남네요. 우리 12기 모두 정말 잘 해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마지막 뒤샘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주호 학생 또한 마지막 뒤샘에 대한 아쉬움과 뒤샘이 학교의 좋은 행사로 자리 잡아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승리의 주인공 백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준 모든 흑염룡팀 계주 선수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시현 기자 손지민 기자



▲ 백팀의 응원

# 목표달성! 아이스버킷 챌린지

## -뜨거웠던 뒤편, 시원하게 마무리하다

2024년에는 색다른 이벤트로 뒤편을 마무리하였다. 뒤편 전, 학교는 한 달간 아프리카 잠비아 학교 책걸상 기부를 위해 거름 후원을 진행하였다. 로비에 있는 모금함의 금액이 일정 높이 도달 시 이사님, 교장선생님과 국토순례 조장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많은 이들의 후원으로 목표가 달성되었고 그렇게 뒤편 당일 라크썸, 폴썸, 두루썸과 조장들 (손준호, 기유진, 김다린, 양민규, 김도린, 안효민, 김시온, 김준우, 이건우, 임세은, 하주호, 김규민, 박신영, 배강희)의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이루어졌다. 그중 8조 김준우 조장은 “처음에는 귀찮고 이런 걸 왜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지만 마침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맞으니 정말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뒤편 때마다 조장들이 아이스버킷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장이라서 이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라며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후원금으로 인해 잠비아 학교 학생들에게 책걸상 100개가 기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공동체의 노력과 기부 정신을 실천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해 준 분들과 거름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김시현 기자 손지민 기자



▲ 박 터트리기

## 샘물을 들썩이게 한 변외경기

샘물 하면 빠질 수 없는 스포츠가 있다. 점심시간과 석식시간마다 샘물을 뜨겁게 달구는, 샘물의 대표 스포츠인 축구가 뒤편의 여러 종목 속에서 변외경기로 펼쳐졌다. 팀별로 대결했던 지난 뒤편 축구들과 달리 올해에는 9, 10, 11학년 남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대결이었다.

그 시작은 9학년이 맡았다. 9학년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와 있을 때, 웅장한 노래와 함께 교사 선수들이 분위기를 압도하며 경기장에 입장했다. 교사팀의 입장으로 관중들의 기대는 점점 커졌고, 경기는 시작되었다. 역시 축구 경력의 차이 때문인지, 아쉽게도 9학년은 교사팀에게 한 골을 내어주게 되었다. 특히 교사팀 아천 선수의 세리머니가 화제가 되었다. 공을 상의 안에 넣고 엄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 곧 태어날 아천 2세를 연상시키는 세레머니였다. 그렇게 1:0으로 9학년과 교사의 경기는 끝났다.



▲ 아이스버킷

그 분위기를 10학년이 이어받았다. 10학년에도 좋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아 기대되는 경기였다. 10학년의 경기에서는 10학년 학생들의 환상적인 패스가 돋보이며 10학년의 동점 골 찬스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학생 선수들이 점수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경기는 아쉽게도 득점 없이 끝났다.

마지막은 11학년과의 대결이었다. 11학년 팀은 챔피언스리그 네 팀의 주장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 아천썸을 필두로 높은 실력을 겸비한 교사팀과 최강 대 최강의 경기라 할 만한, 보는 눈이 즐거운 경기였다. 11학년 팀에게 좋은 찬스가 많았지만, 교사팀도 그에 못지않은 무결점 수비로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연속으로 세 번의 경기를 함에도 학생 선수들에게 절대 점수를 내어주지 않는 교사팀이 인상 깊은, 교사와 남학생들의 경기였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축구 경기가 있다. 바로, 새로 추가 된 종목인 여자축구이다. 남자축구와 마찬가지로 여자축구 또한 변외경기로 진행되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선수들의 실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여자축구는 11학년 여학생 팀과 9, 10학년 여학생 팀의 대결로 팀의 코치는 각 학년의 남학생들이 맡았다. 선수들은 약 4주간의 기간 동안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훈련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다고 한다. 그 덕에 여자축구는 관중들의 큰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기 초반, 11학년 선수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진행되었지만 9, 10학년 학생들도 열심히 공을 막으며 11학년의 득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9, 10학년 팀의 핸들링으로 11학년은 골 찬스를 얻어 11학년 팀의 김준우 학생이 골을 넣으며 11학년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11학년의 득점에도 9, 10학년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격하며 프리킥 찬스를 얻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 두 팀의 선수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경기였다.

비록 뒤편의 변외경기였지만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과 매주 열리는 샘스가 아닌 새로운 팀의 경기로 샘물을 다시 한번 들썩이게 한 뒤편 축구경기 모습이였다.

소은 기자



▲ 여자축구 경기



▲ 12기의 응원

# 뛰샘 중 숨겨진 이야기들

진행자-최주안, 김시온

## Q. 진행자를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주안: 풀뿌리원들 중 케미가 가장 좋은 커플이 진행자를 맡게 될 거라는 말에 김시온 씨와 눈빛 교환 후 바로 손을 들고 지원했습니다.

시온: 마지막 뛰샘을 우리의 열정으로 불태워 보자, 섬김의 마음으로 진행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 Q. 이번 학교 뛰샘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주안: 우승팀을 발표했는데 마지막 점수 계산에 실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온: 저는 아무래도 충격으로 다가왔던 점이 저의 실수로 우승팀 발표를 잘못된 순간이었는데요.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이 고등학생인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Q.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주안: 뛰샘에서 MC라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고, 풀뿌리가 다양한 종목들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도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온: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주안이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Q. 뛰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안: 뛰샘을 준비하며 느낀 건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 리더인 샘지기를 잘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온: 많은 친구들의 참여로 이를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메인 게임 진행 멘트보다 게임 사이 시간 진행에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특이한 게임도 넣었구요.

## Q. 뛰샘이 끝난 후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요?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나요?

주안: 마지막 계산 실수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 온 뛰샘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시온: 뛰샘이 끝나고 준비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난관을 극복했구나 싶었어요. MC라는 자리가 어쩌면 큰 도전인데, 도전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중간에 틈틈이 있었던 실수들이에요. 실수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했는데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 Q. 진행을 하며 참여하지 못한 종목 중 가장 하고 싶었던 종목은 무엇인가요?

주안: 새로 추가된 아이스브레이킹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리허설 때도 못 해봤거든요. 기회가 생긴다면 얼음 녹이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온: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 줄다리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진행하면서 중간에서 보고 있다 보면 양 팀의 발걸음 소리가 우다다다 엄청 크게 느껴져요. 저도 그 웅장함 속에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 진행 중인 MC들(오른쪽)

샘지기-배강희

## Q. 가장 기대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강희: 과거 뛰샘을 보면서 풀뿌리 선배들이 무전을 차고 돌아다니셨던 모습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뛰샘 때 무전기를 잘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뛰샘 당일 뜨거운 현장 분위기가 기대되었습니다.

## Q.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강희: 큰 도전은 새로운 종목인 아이스브레이킹이었습니다. 진행 도중 얼음 속 쪽지가 다 젖어버릴 것 같아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 Q. 뛰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 Q. 참여하지 못한 종목 중 가장 하고 싶었던 종목은 무엇인가요?

강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아이스브레이킹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 Q. 뛰샘을 준비하면서 얻은 소중한 추억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강희: 뛰샘을 준비하며 저희가 한두번정도 밖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선선한 날씨의 해 질 녘에 다 같이 모여 디자인을 준비하고, 게임을 했던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억입니다.

## Q. 뛰샘이 끝나고 난 후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나요?

강희: 저에게 뛰샘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지 않았고, 잘 해냈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 Q. 다음 뛰샘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강희: 뛰샘 설문을 진행 했는데요, 설문에 더운 날씨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이 아닌 가을이나 초봄에 하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 Q. 뛰샘을 위해 힘써준 풀뿌리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강희: 너무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풀뿌리 친구들이 해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혜빈 기자 이루리 기자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승리 후 기뻐하는 백팀



▲ 경기 진행 중인 풀뿌리원

# 하나 될 거야 샘물!



## 국토순례 이후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목장모임

2024년 샘물에는 이전엔 볼 수 없던 새로운 문화가 있다. 바로 국토순례 조별 목장모임이다. 같은 조의 선후배가 한 목장을 이뤄 국토순례 이후의 일상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6월 20일과 7월 12일, 목장모임이 진행되었다.

목장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7학년 신우리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처음 목장 모임을 하게 된 소감을 물어보자, 선배들과 자신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편했고 좋은 시간이었다며 목장모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앞으로 남은 모임 동안 선배들과 서로 알아가고, 함께 기도제목도 나누고 싶다고 기대하는 마음을 비쳤다. 덧붙여 선배들이 자신의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고 감사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8학년 박현진 학생과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처음 해보는 목장모임이 어땠는지 물어보자, 선후배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답했다. 또한 나눔을 하며 샘물의 사명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샘물에 들어온 이유까지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답변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목장모임을 통해 서로가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공동체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오윤우 기자 이수하 기자 전예빛 기자



▲ 고등 목장모임

## 중등이 하나되는 아침 복상

맺음을 2주 앞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중등 복상이 진행되었다. 중등 복상은 7, 8, 9학년이 연합하여 9학년의 주도하에 진행된다.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선배, 후배와 함께 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리더로 섬긴 9학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9학년 소은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등 복상이 어땠는지 묻자,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행사와 달리 9학년이 리더가 되어 인도하는 것이 좋았다고 답했다. 또 복상을 이끌며 리더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배들이 귀여웠다고 웃음을 보였다.

나흘간 가장 기억에 남는 본문으로는 시편 31편 1-13절을 꼽았다. 이 말씀은 시편 기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바라는 내용이다. 소은 학생은 "첫날에 7학년 친구가 7, 8, 9학년 복상의 차이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7, 8학년에 모범이 되는 복상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며, "이 말씀을 통해 신앙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을 돕는 중등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한다.

오윤우 기자



▲ 중등 목장모임

# 목자가 된 부조장들을 만나다

목장모임은 11학년들이 각 조의 목자가 되어 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국토순례길 위에서 조원들을 위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몸으로 섬겼던 조장, 부조장들이 이번엔 학교로 돌아와 목장모임의 리더가 된 것이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목자 두 분을 만나보았다.

## 인터뷰 - 11학년 손지애 (9조 목자)

### Q. 처음 해보는 조원들과의 목장모임, 목자로서 어떠셨나요?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처음에 국토순례 조로 목장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은 막막했습니다. 저희 조에는 11학년 여자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려니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조원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장 모임 당일이 되고 저와 11학년 친구들은 목장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목장모임 장소에 도착하고 긴장한 상태로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각자에게 기억에 남는 복상과 일상에서 생겼던 고민과 아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조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깊게 나눠주며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풍성한 나눔을 위해 얘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나누어주었던 얘기를 토대로 조원 친구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따뜻했던 목장모임이었습니다.

### Q. 다음 목장 모임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장소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장모임 장소는 도서관인데 개방된 장소라서 자유롭게 찬양을 하지 못하고 나눔도 주변 소음에 의해 끊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곳이 아니라 조금은 밀폐되고 조용한 공간에서 목장모임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 Q. 앞으로도 계속될 목장모임, 앞으로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조원 친구들과 더 친밀한 관계가 기대됩니다. 저는 다정한 목자는 아니라 표현방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나눔에 더 깊이 공감하는 목자가 되어 그저 9조의 목자가 아닌 나의 힘들을 얘기해도 안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윤우 기자

## 인터뷰 - 11학년 장유빈 (8조 목자)

### Q. 목장 모임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국토순례가 이렇게 길게 연장되어 국토순례 조원들과 같이 복상 나눔을 한 게 올해 처음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임해주어서 정말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었고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들으며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Q. 혹시 아쉬운 점은 있나요?

다 좋았어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누가 나서서 먼저 불러야 하는데 먼저 큰 목소리로 부르는 친구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거 같아요.

### Q. 앞으로도 계속될 목장모임, 앞으로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전에 나왔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저번에 걱정했던 기도 제목들이 해결이 되었는지, 또 어떤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신예성 기자



▲ 9조 목장모임

# 광고

## 1. 샘플꺼억

- 점심, 석식 시간에 진행되는 선후배 멘토링
- 신청 QR코드



## 2. 주말 복상 미트 운영

- 토요일 오전 9시-9시 50분 진행

## 3. 중고나라 전교생 대상 확장 운영

## 4. 안대옥홀 앞 기도나무 운영

## 5. 학사 일정

- T-day (Teachers' day) 9/13 (금)
- 샘플가족축제 9/21 (토)
- 체험학습 10/23~25 (수)~(금)

## 6. WCA 영상 <한달, 하이틴>



# Hi, Justin!

## 저스틴&카일 인터뷰

“So it seems like such a happy and welcoming community at SMCA.”

지난 여름 한 달간, 샘물의 7학년부터 12학년 영어 수업 교실에 반가운 금발 머리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6월 한 달간 샘물의 학생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때때로 체육 수업에 참여하며 샘물에서의 학교 생활을 즐겼으며 한국에서 생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햇살이 내리쬐던 6월, 미국에서 찾아온 손님 Justin Fuller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샘보가 직접 저스틴을 찾아가 취재해 보았다.

이서원 기자(이하 S):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Justin(이하 J): 네.

S: 이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SMCA에 오시게 되셨나요?

J: 저의 아버지가 WCA에서 일하셔서 고영민 이사님과 친분이 있으셨어요. 이사님이 아버지를 통해 샘물에서 가르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고, 마침 제가 대학 졸업 후 시간이 비었어요. 저는 2019년에 SMCA에서 진행되었던 WCA 캠프에 봉사자로 참여해서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제안을 승낙하여 이렇게 SMCA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다현 기자(이하 D): SMCA 학생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J: 다들 너무 친절하고 미국에서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처음 SMCA를 돌아다녔을 때 학생들이 다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해서 너무 귀엽고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D: 이제 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나요?

J: 네, 이제는 미국인 학생처럼 행동합니다. 거의 친구 같아요.

S: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한 말이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J: 항상 인상 깊었던 질문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D: 그럼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J: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SMCA 학생들이 모두 친구처럼 잘 대해 주었고, 한국에 WCA나 옛날에 샘물을 통해 만난 다른 친구들도 많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D: WCA와 SMCA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J: SMCA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에게 매우 친절하네요. WCA에서는 학생들이 개인 핸드폰을 갖고 있고 심지어 수업 중에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많이 소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기타도 치고 함께 노래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CA는 정말 행복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S: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J: 네, 언어 차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할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샘물 학생들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못하는 게 눈에 보일 때, 그러니까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는 게 한국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네요.

D: 그런데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J: 한국어요?

D: 네! 한국어 읽을 수 있잖아요.

J: 한국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읽는 것 중 한두 단어를 빼고는 항상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국어를 읽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D: 발음도 좋으세요.

J: 감사합니다. 아마도 케이팝 덕분인 것 같아요.

D: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이제 로스쿨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J: 제가 대학 때 금융 사무실에서 일해서 국제 무역과 같은 글로벌 금융 거래를 위한 금융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S: SMCA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J: 네, 이번 달 제가 샘물 배움 공동체의 일부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항상 매우 행복했고 제가 정말 샘물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갈 때,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저로부터 좋은 것들을 배웠기를 바라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S: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스틴은 이번 생일을 샘물에서 맞이했다. 많은 학생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했고, 급식실에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저스틴은 인터뷰 후 샘물에서 생일을 특별하게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생일 축하를 준비해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바늘 가는 데에는 실 따라간다는 옛말에 걸맞게, 세상에는 최고의 듀오가 몇 있다. 토트님의 손흥민과 케인, 영화계의 이정재와 정우성, 그리고 저스틴과 카일. 저스틴의 옆에서 항상 그를 챙겨주며 통역을 맡은 샘물의 자랑스러운 5기 졸업생, 황규현 선배의 인터뷰도 해보았다.

황규현 선배(Kyle) (5기 졸업생, 산업 시스템 공학과)

S: 어떤 계기로 저스틴 통역을 맡게 되셨나요?

황규현 선배(이하 H): 고영민 이사님께서 작년에 Hayden (WCA 졸업생, 2023년 학교 방문)이 혼자서 학교에서 지내는 게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사님께서 방법을 찾으시다가 마침 통역이 가능하고 시간이 남는 저에게 저스틴 통역을 부탁하셨습니다.

S: 통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H: 어려웠던 점은 한국어에는 있지만 영어로는 잘 통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표현을 통역하는 게 어려웠어요.

D: 저스틴과 함께했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H: 저번에 홍대에서 논 적이 있는데 그때 2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그 날씨에... 참 힘들었어요.

S: 유학을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나요?

H: 저는 한 번 운이 좋게도 고등학교 때 1년 정도 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미국의 맛’을 봤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미국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 덕에 언젠가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D: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H: 영어, 사실 저도 학생 때까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영어는 쓰면 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문법을 잘 모르지만, 얘기하는 데 아무 문제 없고 계속 말하려고 해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말, 또 두세 단어로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D: 저스틴 통역 외에 통역 경험이 있으신가요?

H: 없었습니다.

D: 통역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하실 건가요?

H: 합니다.

S: 마지막으로 샘물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H: 지금 당장 학교에 불만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은 텐데 제가 졸업하고 보니까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한 번 열심히 다녀보는 걸 추천합니다. 화이팅.

저스틴의 샘물의 시간이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인터뷰에 응한 저스틴과 황규현 선배에게 감사를 표하며, 둘 사이의 우정과 앞으로의 행보를 샘보가 응원한다.



▲ 인터뷰 중인 저스틴과 카일

기다현 기자 이서원 기자



인터뷰 영상이 궁금하다면?



▲ 수업 중인 저스틴



▲ 저스틴과 8TOP반

# 함께 지어져가는 소통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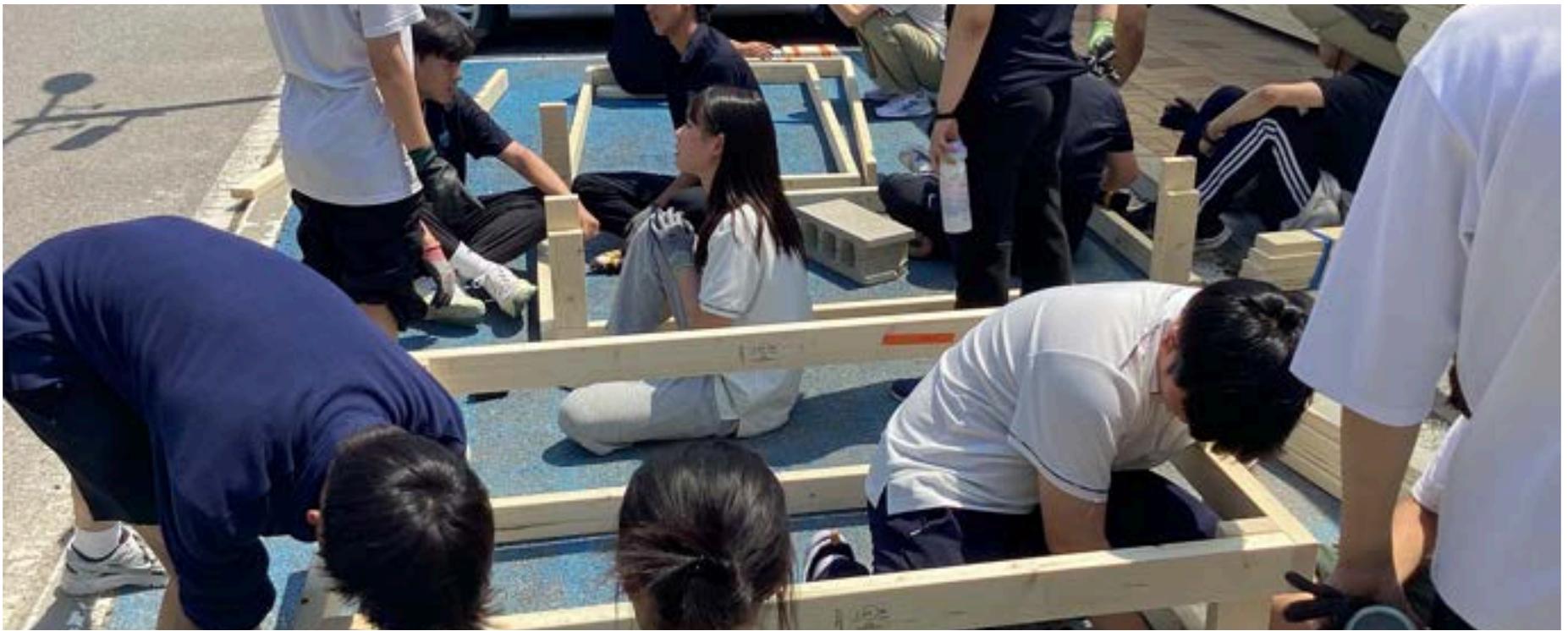
## 13기 집짓기 프로젝트

이번 13기의 샘플수업은 집짓기이다. 집짓기는 학교 공간에 학생들이 직접 집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작년에 시작된 집짓기는 12기에서 시작되어 13기에 이어져, 현재 학교 보건실 옆 공간에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있다. 샘플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선생님들 모두 편안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 중이다. 또 집 내부에 미술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도 있다. 집의 디자인은 여러 번 수정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얼마 전, 집짓기의 장소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며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다 함께 협동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샘플의 집짓기는 집장, 디자인 팀, 수치 설계 팀, 시공팀으로 나뉘어 10학년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부터 설계, 시공까지 모두 맡는다. 각 팀의 팀장을 학생이 맡아 자주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현재는 공간의 바닥 공사를 완료하고, 각 모듈의 계단을 박스 형태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집짓기를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13기의 열정을 볼 수 있다. 같이 협력하며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13기가 서로 더욱 끈끈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3기가 만드는 이 공간이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배영현 기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 동일해요.”

인터뷰 - 그썸(우성철)

Q. 어떤 목적으로 10학년 집짓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요?

집짓기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각자의 진로를 설계해보고 인생의 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진로는 다르겠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집을 지으며 각자의 역할 안에서 크게는 인생,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세상의 가치인 ‘빨리. 많이. 높이’의 가치로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다르게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거나 하나님이 주신 진로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집을 지어나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찾아서 꾸준히 시간을 들여, 목공예선 칼라를 버린다고 하는데, 자신을 꾸준히 버려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현재는 골조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뼈대, 제일 기초인 바닥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왔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독특하거나 외관이 화려한 것이 아닌, 처음 보기에는 좀 밋밋하고 싱거운 공간 같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고 계속 있고 싶은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집짓기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는 개인적인 건데, 집짓기는 제게 큰 부담입니다. 얼마큼 부담됐냐 하면 꿈에서도 집짓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작년에 그렸고, 이렇게 부담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집짓기가 끝나는 즈음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 멋진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대됩니다.



▲ 그썸의 모습

두 번째 기대는요. 10학년 아이들에 대한 기대예요. 집을 지어간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각자의 가치를 담아내고 생각을 담아낸 집짓기는 아이들을 더욱 성장시킬 거라 기대합니다.

Q. 10학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10학년은 저와 3년을 미술을 했던 아이들로 늘 마음이 닿아있고 뭘 하든지 예쁘고 생각만 해도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그리기를 놓지 않았으면 해요.

박은빈 기자

## 인터뷰 - 집장 (강예나, 김희중)

다수의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할 때 그들을 주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리더는 꼭 필요하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10학년 집짓기’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바로 집장이다. 집장은 집짓기의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집장은 책임감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을 뽑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샘보는 지난 달 28일, 10학년 집짓기에서 집장을 맡고 있는 강예나, 김희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Q. 10학년 집짓기에 집장을 맡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희중: 이제 11학년이 되면 앞으로 리더를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 시작점이 집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집장이라는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11학년에 국토순례 조장이 될 수도 있고, 샘지기, 풀뿌리 같은 기구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집장을 지원했어요. 또한 이제 집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과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소통해 나갈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나: 우선 집장이 돼서 너무 좋고, 35명이 학년으로 보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둘이서 감당하기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하나하나씩 조율해 가는 게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목적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게 엄청 성취감이 큰 것 같아요.

### Q. 집짓기에 임하는 마음은 어떠한가요?

희중: 집장이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계속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저 또한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자라는 마음이 짐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안 다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치지 않게 안전을 유의하면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집짓기의 장소가 바뀌어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나가야 해서, 천천히 맞춰나가야 할 것 같아요.

### Q. 재밌었거나 힘들었던 일화가 있나요?

희중: 무엇보다 집짓기 장소가 바뀌었던 점인 것 같아요. 갑자기 공지가 되어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 임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한테, 디자인을 처음 했던 걸로 그대로 못 가져가는 거요. 사실 처음 디자인대로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디자인을 수정하고, 지금도 거의 한 서너번 바꾼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나: 진짜 더워서 하다 보면 너무 짜증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못 한 번 잘못 박히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애들이 용용체를 쓰면서 서로 화를 안 내고 아직까지 한 명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 Q. 10학년에 하고 싶은 말?

희중: 너희와 함께 집짓기를 하게 되어 감사하다. 한사람 한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 또 집짓기를 통해 13기가 다같이 하나될수 있어 좋아. 집짓기가 끝난 이후로도 하나되는 13기 되길 바란다.



▲ 모듈 디자인



▲ 집짓기 중인 10학년의 모습



▲ 집짓기 중 10학년의 모습

예나: 내가 너희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키웠었다. 너희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의외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고 고맙단다.

10학년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인터뷰는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남겨둔 2학기에서도 집짓기를 이끌어가야 할 두 명의 집장에게 응원을 전한다.



▲ 집짓기 중 10학년의 모습

## 인터뷰 - 디자인팀장 (박수진), 수치설계 팀장 (황지우)

### Q. 집짓기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지우 : 저는 이번에 수치 설계 팀장을 맡았는데요, 모듈의 자세한 수치를 디자인에 맞게 정하고요, 그다음에 모서리 같은 부분이 딱 맞는지, 높이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수정합니다.

수진 : 저는 모듈의 디자인 팀장을 맡았습니다. 모듈을 디자인하고, 그썸과 나래썸께 컨펌 받으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 Q. 집짓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지우 : 저는 원래 저희 모듈이 ‘제일 컷으면 좋겠다, 제일 눈에 띄고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짓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부분을 조율해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수진 : 디자인 수정을 엄청 많이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디자인 세 개 중에 제 디자인이 수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정말 180도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디자인이 도중에 바뀔 수 있다는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3단에서 1단이 되고 계단이 평상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박소현 기자

#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릴게요. 저를 써주세요.”

“폴쌤은 어디 계세요?”

어느덧 묘연해진 폴쌤의 행방에 학생들의 궁금증이 끊이지 않는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어디서든 볼 수 있었던 폴쌤이 올해부터는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폴쌤은 배움 연구소장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계신다. 샘물 학교의 전 교장선생님이자, 현 연구소장인 폴쌤의 근황과 삶을 샘보가 자세히 파헤쳐보고자 지난 7월 10일 폴 양석현 연구소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Q.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근황을 궁금해 해준다니 너무 기쁘고 고맙구나. 연구소 일의 기본은 우리 학교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돕는 거란다. 다음, 학부모 교실 진행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나 ‘기독교 학교육연구소’ 같은 단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넓혀가는 일도 하고 있단다. 또 해외 기독교 학교들에 우리 학교의 노하우를 알려서 기독교 학교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있지. 10학년 학생들이 매년 비전 트립을 가잖니. 이를 위해 네팔하고 일본을 미리 탐방하기도 하지. 작년까지 선생님이 교장을 하면서 샘물중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샘물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잘 연계될 수 있게 초등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도 이제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란단다.



## Q. 샘물을 만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릴게요.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응답을 주셨지. 사실 그때까지 선생님은 교사를 제일 싫어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선생님이 되라는 것이었다. 한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동일하게 들려서 교사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교육대학원을 진학해서 30살에 영어 교사가 됐다.

첫 부임지는 서울에 있는 영신여자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이었어. 그 곳에서 6년 동안 영어교사를 했다. 매일 오전 8시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열심히 교사 생활을 했다. 그런데 학교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고 그때 함께 그만 둔 수학 선생님과 의기투합해 학원을 개원했다. 학원 이름은 “HIS Academy”, 기독교적 학원을 만들어 복음 전파하자고 다짐했었지. 그런데 학원에서도 한계점을 느꼈단다. 학원은 학부모님과 학생들 대부분이 성적 향상만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했지.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내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40대 초반에 기독교 학교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샘물의 교사가 되었고, 판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샘물의 교사로 섬기게 된 거란다.

## Q. 샘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11학년 때 담임을 맡은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10학년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내가 맡던 11학년 때도 여전히 아침에 복상을 한 번도 안 했던 아이였지. 학교에 안 나오기도 하고 학교에 온 날이면 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잤어. 학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아이였고, 이 아이랑 상담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었어.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바비큐장에서 단둘이 앉아 있던 그 날, 이 아이가 진짜 자기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가정에서의 문제, 신앙에서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를 다 꺼내놓았지. 그 이후 학교생활이 조금씩 회복됐어. 11월 때쯤 아이가 갑자기 나에게 오더니 “선생님, 저 꿈이 생겼어요”라고 말하고는 아침마다 복상을 하기 시작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진짜 체육학과에 진학을 했다. 참 기억에 남는 제자란다.

또 하나 선생님의 기억에 남는 건 학부모님들이란다. 내가 “학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란단다.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기도팀 만들어서 매일 학교에서 기도하시지, 주말에도 기도하시지, 예전에는 어머니들만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기도회가 있어 따로 모여 기도하신단다. 선생님은 이 기도 모임이 샘물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단다. 우리 학교 역사가 길지 않은데 73명으로 시작해서 15년 만에 유초중고가 만들어지고, 학생이 540명이 넘게 되었거든. 샘물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장한 학교는 없단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기도라고 생각한단다. 물론 선생님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학교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기도했던 그분들, 운동장 생기는 게 유일한 목표라고 기도 제목 삼으신 분들 덕분에 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한 거란다. 그러니 학부모님들은 선생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분들이지.

### Q.구호를 짓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보통 대학들 보면 같은 과 학생들끼리 외치는 과 구호가 있단다. 졸업하고도 외치는 학교, 학과만의 그런 구호는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보였단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런 구호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아래 자막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한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찬양 콘서트 하는 영상이 나오는 거야. 노래 중에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가사가 눈에 띄었고 ‘아, 이거다’ 해서 만들게 된 거란다.

### Q.인생 찬양과 말씀이 있으신가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의 죄인일 때의 모습과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대조되며 한없이 눈물이 난단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이란다.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생님 인생을 부족한 것 없이 채워 주셨고 그분만이 나의 목자되신다고 선생님은 고백한단다.

### Q.플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은혜”

내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은혜”, 그것 말고는 설명할 단어가 없단다. 왜냐하면 20살 이전까지 나는 너무나 피폐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너무 행복해졌기 때문이지. 내가 아플 때, 실패할 때, 낙심할 때, 이런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거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도 다 때가 되어 이루게 해주셨단다. 20대에는 3수 끝에 교육대학원에 합격시켜주셔서 교사가 되었고, 30대에는 기독교 학교를 이끌고 싶었던 꿈을 18년 만에 샘물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이루어주셨고, 젊은 시절 꿈이었던 신학공부도 40대에 신학대학원에서 이룰 수 있게 해주셨고, 30대 때 가졌던 기독교교육학 유학의 꿈도 이 늦은 나이에 이루어 주셔서 지금은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지. 정말 놀랍지 않니?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이 하나 생겼단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맨 처음에 짓는 게 있단다. 그래, 교회란다. 교회부터 짓고 나서 교회가 안정되면 그 다음으로는 학교를 짓는단다. 그런데 내가 필리핀, 네팔 등의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단순히 그 나라 입시 교육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교사 중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기도 하고, 기독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는 기독교 학교인데 가르치는 내용은 기독교가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지. 선교지에 기독교 교사들을 양육하는 게 앞으로 선교의 사역으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단다. 그래서 제 2의 인생은 선교지에 나가서 기독교사를 양육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단다. 이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 Q.샘물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샘물이 기독교 학교고, 좋은 선생님들 아래서 함께 배우지만 모든 공동체는 부족함이 많거든. 편입해 온 아이들은 편입한 아이들만의 문제가 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있단다. 내가 항상 학부모님들과 졸업생들 앞에서 꼭 하는 말이 있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샘물 학교 졸업입니다.” 진심이거든. 샘물 학교에 다니면서 자퇴를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학생이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고민했는데 실행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졸업하는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단다. “버티길 잘했다.” 졸업을 한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면 본인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더라고.

관계 문제, 학업 문제, 다양한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일단 참고 참으면 나중에 진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거란다.

### Q.샘보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샘보는 내가 교장일 때 처음 만들어졌단다. 선생님 딸도 6기 졸업생인데 샘보에서 활동 했었지. 선생님 딸이 졸업하고 나서 샘보가 끊기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웠단다. 그런데 3년 만에 샘보를 재발간한다니 너무 기뻐단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 동아리는 너무 소중한단다. 샘보가 앞으로 끊기지 않고 후배들에게 잘 이어져서 학생들 간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뉘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아진 기자

# 오탈자를 찾아라!

이 신문 곳곳에는 오탈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문의 오탈자 2개를 찾아 올바른 표기법을 보내주세요.  
(오탈자를 찾기 위해선 꼼꼼히 읽어야겠죠?)

ex) 1면 2번째 줄 꼼꼼이-> 꼼꼼히

s2007102@smca.or.kr  
선착순 3명 아이스크림!

# 샘피언스리그의 숨은 주역



샘물을 뜨겁게 달구었던 샘피언스리그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막을 내렸다. 지금의 샘피언스리그가 있기까지 각 팀 곁에는 늘 코치샘들이 함께였다. 어쩌면 선수들보다 더 역동적으로, 더 뜨겁게 몸을 불살랐을 숨은 주역, 샘피언스리그의 코치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Q.체력, 괜찮으신가요?

아티: 첫 경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빅샘(c팀의 감독)과 함께 협의하여 헬스장을 다니면서 체력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력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체력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천: 체력 괜찮습니다. 많이 뛰는 거 아니고 15분, 30분 차는 거라서요. 오히려 저는 30분 정도를 뛰어야 숨이 터지거든요. 숨이 터진 이후부터 환기가 싹 되면서 더 잘 뛰는데, 샘스에서 30분 정도 뛰면 숨이 터질 때쯤 끝나서 조금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력은 괜찮다. 91년생~ 아직 괜찮습니다^^

하루: 첫 경기 뛰었을 때 엄청 좋을 것 같았거든요. 결론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차 지치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거 보니까. 그치만 여전히 힘들다.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힘들다.

달: 그럼요. 저는 원래 옛날부터 강철 체력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지난 5년간 운동을 안 해서 비루한 체력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습니다.

## Q. 자신의 축구 역사 설명해 주세요. (시작시점,전성기)

아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러 나갔는데 그때부터 축구를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 때 축구부를 했었거든요. 4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하는 걸로만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반 대항전을 하잖아요. 체육대회 때마다 제가 있는 반이 계속 결승에 올라갔어요. 고2 때 친구들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고3 때 제가 결승을 앞두고 다리를 다쳤어요. 결승 올라가기 전 마지막 경기 때. 그래서 제가 결승 경기를 못 뛰고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천: 아빠랑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패스 주고 받았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가 5살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축구는 남자로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퇴근하고 오시면 1주일에 세네 번씩은 항상 패스 연습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이쯤부터 축구가 재밌어져, 축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성기는 무릎 다쳐서 수술하기 전 고1,2 때인 것 같아요.

하루: 이렇게 제대로 한 건 처음입니다. 고등학교 때 반에서 학급 티로 유니폼을 맞춘 적은 있으나 이렇게 리그로 편견 처음이에요. 그리고 전성기. 전성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예정.

달: 축구는 그냥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성기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예요. 전혀 신뢰가 안되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제일 빨랐습니다. 저희 학교를 다니던 서울시 육상 대표를 제가 이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육상대표 친구가 저한테 운동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했었어요. 햄스트링 다치기 전까지는 계속 잘했던 거 같아요. 중학교 대표로 서울시 동작구 대회에 나가 주장으로 3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서 운동능력이 떨어져 잘 못하지만요.

## Q.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아티: 제 강점은 축구 센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남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덜 노력해도 빛을 내보일 수 있는 축구 감각이 제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천: 저의 강점은 멘탈과 패스입니다. 어느 상대랑 경기를 하든지 난 잘한다, 자신감 있다. 이게 자신감 표출이거든요. 이 자신감, 멘탈이 저의 강점이구요. 저는 원래 공격형 미드 필더, 즉 패스랑 드리블이 좋았던 선수라서 패스가 좀 좋은 선수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 걷어내기. 수비에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는 볼 걷어내는 거, 그리고 약간의 운동 신경 정도.

달: 지금은 없어요. 아 생각났다. 선생님이란 권위를 앞세워 잦은 반칙과 밀기 잡기에 능하다.

## Q.나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아티: 제 약점은 아무래도 체력입니다. 제가 저희 팀 친구들을 많이 커버해주고, 움직여줘야 하는데 나이도 나이고 체력도 생각처럼 따라오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체력입니다.

아천: 저의 약점은 수비력입니다. 사실 (샘스 이외의) 개인적인 팀에서는 수비를 거의 안하고 공격만 하거든요. 샘스에서는 수비가 필요해서 수비를 하고 있지만 수비력이 좀 약점입니다.

하루: 볼 컨트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시야가 좀 좁아요.

달: 나이가 들어서 순발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순간 멍칫멍칫 합니다.

## Q.우리팀 자랑 부탁드립니다.

아티: 팀 조직력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개개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개개인의 능력으로 서로서로를 커버해주는 게 저희 팀의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천: 우리팀은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그 개개인의 실력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아 팀웍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개인 능력이 워낙 좋은 팀이라 마지막 3라운드에서 아이들의 실력이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좀 착하다. 축구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다. 그리고 11학년들이 탄탄해가지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아서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달: 우리팀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 모든 팀들이 알잡아보는 최약팀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희 팀을 사(死)도나이로 강등시켜 버리겠다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당당한 1위. 1라운드, 2라운드 1위, 그리고 시작된 3라운드에서도 1위입니다. 저희는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서 도윤, 주안, 한결이처럼 공격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격을 잘 펼칩니다. 이 친구들이 공격 포인트 1,2,3 위예요. 또 주전과 비주전 선수를 골고루 기용하는 하킴쌤의 지략도 한 몫합니다.

## Q.우리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티: 저는 경기가 끝나고 늘 아이들한테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경기를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정말 행복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격려해 주고, 경기를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천: 출전 정지 좀 그만 당해라...

하루: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는 경기에도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달: 지금 너무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과제 잘 해서 출전정지 당하는 애들 없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했지만 퀴즈를 못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과제를 안하는 건 성실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는 좀 잘 했으면 좋겠다.

## Q.최애 선수 누구인가요?

아티: 저는 저희 팀 주장 정혁이. 정혁이가 뒤에서 너무 잘해줘서 저희가 경기 운영을 그나마 좀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천: 저의 최애 선수는 팀의 주장, 윤승권 선수입니다. 우리 윤승권 선수가 팀의 중심축을 잡고 끌어나가는 입장에 있는데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팀에서 가장 잘하는 친구고 사랑하는 선수인데 그 부담감을 빨리 털어내서 좋은 실력 발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 서겸이랑 준호. 서겸이는 우리 주장이기도 하고 축구 실력은 당연히 뛰어나지만 부드러운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요. 조언할 때는 단호하게 조언하고, 부족한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본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준호는 포지션상 호흡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달: 일단 주장 주안이.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명석입니다. 주안이 없으면 그래도 저희가 수비로 댈 수 있지만 명석이 없으면 대체할 선수가 없어요. 명석이는 아도나이의 대체불가한 선수입니다. 한명 더 있습니다. 김지수. 제가 지수한테 경기 내내 잔소리를 해요. “움직여!, 이리와, 이사람 막아, 어디가, 여기 막으라고!!” 이 얘기를 경기 이삼십분 내내 해요. 근데 그래도 지수는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런데 지수가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꾀꾀이 하더니 레벨업이 됐어요.

지금 또 본인 레벨업 됐다고 약간 기고만장해져서 제가 하던 잔소리를 다른 친구들한테 하고 있긴 한데.

## Q.어떤 생각 하며 뛰시나요?

아티: 제가 성경과 선생님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구를 할 때 하나님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안 하면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했기 때문에 늘 다쳤어요. 그래서 축구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나님 이런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크죠.

아천: 샘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경기 승패보다는 다치는 학생 없이 공동체성과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길 바라며 뛰니다.

하루: 처음에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지금은 좀 체력적으로는 할 만하다. 경기 상황에서는 즐겁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많이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이면에는 잘하고 싶다, 이번에는 정말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달: 오늘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밖에 못 땄까. 농담이고 그냥 아무 생각 안해요. 사실 저는 이기고 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샘피언스 리그의 목표 자체가 우승을 해서 영광을 얻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샘피언스 리그 처음 취지가 고등학생들이 수요일 여가시간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보낼까, 선생님들끼리 고민하다가 공이라도 차면 스트레스도 풀고 학업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어요. 샘스는 학업적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경기에 재밌게 참여하고, 일상을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기는 경기 자체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승점은 재미 요소를 부각시켜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구요.

## Q.샘스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 무엇인가요?

아티: 최근에 M팀이랑 했던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한 4골 정도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M팀이 준비를 너무 잘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고전했고 결국엔 한 골을 먹었죠. 이제 이걸 진경이다, 생각하는 차나에 마지막으로 제가 볼을 잡고 패스를 하고, 그 볼이 민재한테 가서 민재가 마지막 동점골을 넣었죠.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아천: 제가 뛰지 않고 학생들만 오로지 선수로 뛰어서 이겼던 경기인데요. C팀과의 경기예요. 김도윤 선수가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C팀을 잡았던. 그때 감독으로 저희 팀을 지켜보며 참여한 첫 승이었거든요. 나머지 경기는 보통 제가 선수로 뛰어서 팀이 이겨도 저의 기여도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으로 이긴 경기는 아이들이 온전히 해낸 거니까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때처럼 우리 선수들이 잘해줬으면 합니다.

하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승. 첫 승을 했을 때가 그 주간 중에 정말 짜릿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넘어져서 벤치에 있었는데 끝났을 때 와서 함께 좋아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는 골을 한 번 넣었었어요. 그때 그 경기는 지긴 했는데 그래도 골맛을 봤다 이게 좀 기억에 납니다.

달: 저희는 지금까지 진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는데요, 그게 첫 번째 경기였어요. 원래 이기고 있었는데 2:1로 끝나기 5분 전에 두 골을 먹히고 졌어요. 이후 어떤 친구가 사(死)도나이 별명을 만들고.. 그 팀은 사실 4등이지만 여튼 그 경기가 제일 사무치게 아쉽습니다.

기유진 기자 이주원 기자



▲ 우승팀 CU의 모습

# WHAT'S IN MY BAG

## : 가방 속 작은 세계

### 7학년 정예지



1 양말이 적었어서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양말을 꺼내서 보송하게 속 신는거 보고 그때부터 들고 다닙니다 머리카락 필수품인거 아시죠? 친구가 급하게 필요 할때도 빌려주려고 많이 챙겼어요.

2 이거는 오빠한테 산 거예요. 사실 판다 했을 때 사기라 생각해서 안 사려고 했어요. 저는 폰이 없어서 원래 노래를 들으려면 아이패드를 꺼내 다음에 어저고저저고 해야해서 번거로웠는데 MP3는 조그마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오빠가 노래를 넣어어서 귀찮게 다시 다운로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3 아이패드 충전도 충전인데 제 아이패드가 10세대라서 팬싱하고 연결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수로 들고다닙니다.

4 저는 지갑을 두 개 들고 다녀요. 하나는 지폐랑 카드가 들어있고, 하나는 동전 지갑입니다.. 제가 학생증이 세 개데 지갑 두 개에 나눠서 가지고 다닙니다.

5 옛날 동전은 모양이 신기해서 보일때마다 모아요.

6 저는 네임펜을 굵기별로 3개를 들고 다녀요. 저도 왜그러지는 잘 모르겠는데 틱이 작은 거는 조그만 곳에 얹게 쓸 수 있어서 편합니다.

7 친구가 여행을 다녀와서 사준 키링입니다.

1 이 돌은 주차장 쪽 길바닥에서 줬던 거입니다. 모양이 일반 돌 같지 않게 생겨서 신기해 주었고, 두번째 돌은 국토순례에서 줬던 거데 첫 번째 날에 돌을 흐르는 곳 있죠? 징검다리 건널 때 도끼가 깨끗해 보이는 돌이 있길래 주었는데 생각보다 만지는 느낌도 좋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2 아이패드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구 배경 화면인데요. 원래는 달로 해봤는데 친구가 지구 배경 화면을 한 것을 보고 도끼가 멋있어서 다시 배경화면을 설정했어요. 제가 비밀번호가 사실 굉장히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한 122자리인가가 넘을 거예요.

3 굉장히 큰 제 필통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저에게는 잘 맞는 필통인 것 같아요. 책고정 집게, 당근 칼 모양 지우개, 초식이 볼펜 등이 들어 있습니다.

4 복스토퍼 책을 읽을 때 바람이 불어도 절대 날아가지 않는 집게가 입니다.

5 이 초식이 볼펜은 좀 신기하게 보통은 가운데가 검은색이지만 이 볼펜은 가운데 색이 보라색입니다. 아마 초식이 좋아하는 음식이 고구마여서 그런것 같아요.

### 8학년 김시현



1 이거 제 아이패드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배울 수 없죠. 아주 활용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쓴 자필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아니라서 보여드릴 수 없답니다 아쉽네요.

2 다음은 우산인데요, 요즘 장마철인 만큼 정말 필수템입니다. 근데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사용하지 못하지만, 비상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3 저의 비상금 6500원과 교회에서 받은 전도 카드입니다.

4 요즘 백일해가 유행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백일해에 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들고다닙니다.

5 저의 정체성이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는 글러브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의 재미가 없을 거예요.

6 이거 학기초에 받은 아이패드 충전기입니다

7 다음은 물통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외에는 물을 자주 안 마시는 편이지만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고 다닙니다.

8 차양티피라면 꼭 들고 다녀야 할 필수품인 인이어입니다. 세컨 피아노는 패드를 사용 했을 때 소리가 작게 들리기 때문에 인이어가 꼭 필요합니다.

9 이거 제 안경인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쓰고 다녀야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앞에 칠판 볼 때나 선생님께서 tv로 수업하실 때만 씁니다.

10 지갑입니다. 안에는 학생증과 카드, 교회 도서관 대출증이 있습니다.

11 아! 이거 진짜 소중한건데 야구 카드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 9학년 구지우







누군가는 영화를 통해 날 것의 모습을 가린 채,  
허상을 각인시킬 수 있음에 좋아한다.

어서 그들의 허상을 지우고, 날 것을 드러내어 서로를 쫓아 먹어주기름.

2024.11.22

제작 | 하필

김규민 김시은 박신영 박주은 배강희 양민규 우수인 윤승권 장서겸 정하원



편집장: 기유진

편집부: 신예성 안예나 이루리 이수하 전예빛 정다해 김시현 박은빈 손지민 오윤우 기다현  
김시은 반해빈 박소현 서승주 소은 양혜빈 이서원 배영현 기유진 이주원 홍아진

디자인: 기유진 이주원 홍아진

감수: 모들샘

\*제보 또는 취재요청을 받습니다 : s2007012@smca.or.kr

# 보

글자를 모으면  
선물이?